



SPECIAL THEME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06 Start

제주개발공사 신임 사장 취임 현장 스케치
소통을 위해, 생생한 현장 속으로

08 Vision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임직원과 함께 이뤄나갈 것”

12 Message

제주개발공사 생생 현장 메시지
함께 꾸는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의 꿈



제주의 물

14 산도롱 삼다수

제주삼다수는 왜 믿을 수 있을까?

16 먹는샘물 이야기

우리나라 먹는샘물 시장, 어떻게 시작됐을까?

18 삼다수 레시피

상큼한 레몬 진저 그린티

발행일 2020년 7월 3일
발행인 김정학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통협력팀
전화 064)780-3398
홈페이지 www.jpdc.co.kr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제주 공감

20 곱닥한 제주마을

습지를 품은 마을, 조천읍 선흘1리

26 소뭇 사랑함수다

제주삼다수 친환경 경영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책임진다

- 〈삼다소담〉은 예로부터 바람, 여자, 돌이 많은 제주의 특징을 표현한 ‘삼다(三多)’와 즐거운 이야기를 뜻하는 ‘소담(笑談)’을 조합한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표하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 〈삼다소담〉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기고된 글과 사진은 공사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며,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공사 소식

28 삼다소담 인터뷰

아이유와 제주삼다수가 함께하는 싱그러운 첫 여름

32 모다들영 공사 사람들

제주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다.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7년간의 기록
제주삼다수 주역들의 생생한 토크 한마당, 삼다수생산본부

42 벨롱벨롱 제주 만들기

코로나19, 힘을 합쳐 함께 이겨내요

46 벨롱벨롱 공사 만들기

연구실 최고의 가치는 안전, 품질연구팀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48 제주개발공사 뉴스

제주삼다수, 재활용 우수등급 획득 외

강건주	강성택	강윤택	강희권	고영미	고효숙	김동주	김보영	김신범	김정보	김 철	남규하	박소연	변창윤	송정현	양금현	양태훈	오익현	이가을	이서우	이재진	장문석	조성수	최희훈	현동하	홍재영 ¹⁾
강경구	강성현 ^A	강은선	고진우	고영철	고 훈 ^A	김동철	김봉언	김아연	김정심	김초롱	남기완	박영만	부경환	송훈경	양길자	양혁진	오재혁	이강민	이성동	이정국	장애선	조성훈	탁 윤	현명숙	홍정훈
강경남	강성현 ^B	강은실	고경덕	고영혜	고 훈 ^B	김동한	김봉철	김양수	김정인	김충환	류호운	박영민	부영애	신규홍	양동빈	양현성	오정립	이경미	이성옥	이정숙	장우석	조영숙	탁일현	현민진	홍주연
강경덕	강성훈 ^A	강은열	고경민	고영홍	고희석	김동현	김봉현	김양준	김정학	김태관	류훈택	박영웅	부상석	신기범	양두혁	양형석	오종호	이경민	이성윤	이정택	장정우	조한울	하동우	현상오	홍주표
강경민 ^A	강성훈 ^B	강은철	고경필	고요섭	공문성	김동훈 ^A	김상수	김양환	김정호	김태영	모상욱	박영준	부성환	신대섭	양민호	양혜림	오지훈	이경봉	이성호	이정환 ^A	장창웅	조현민	하민정	현상협	홍준의
강경민 ^B	강성훈 ^C	강익성	고기원	고용찬	권용석	김동훈 ^B	김상현	김양훈	김정훈 ^A	김태우	문덕철	박용재	부승협	신동철	양봉규	양호찬	양홍종	이경옥	이성화	이정현 ^B	장호기	조현철	한정일	현소양	홍지수
강경수	강승민	강입찬	고남희	고용훈	권준형	김만경	김서연	김영돈	김정훈 ^B	김태은	문민구	박용훈	부정호 ^A	신동혁	양성도	양홍준	오태경	이경진	이수경	이정홍	전영지	좌경록	한길용	현소영	홍지창
강경준	강승용	강재현	고대경	고원준	권혁용	김무송	김석정	김영준	김정훈 ^C	김태진	문민권	박유타	부정호 ^B	신문주	양성봉	여병구	오태민	이경호 ^A	이수연	이정훈	정관우	좌영희	한동훈	현승미	홍지호
강경탁	강승준	강정필	고도환	고원진	김경남	김미나 ^A	김석훈	김영환	김계우	김태현	문보영	박 일	부지환	신민후	양성원	염해경	오혁재	이경호 ^B	이승민	이정훈	정관우	좌태산	한승효	현승철	홍태영
강관수	강승호 ^A	강제권	고동남	고유익	김경만	김미나 ^B	김선희	김영훈	김중범	김태혁	문선희	박재연	부태권	신상률	양승신	오국택	우경남	이경환	이승식	이주철	정다연	좌미소	한용재	현승탁	홍 호
강권수	강승호 ^B	강종훈	고마워	고유정	김경민 ^A	김미숙	김선희	김영희	김중용	김태현	문성일	박재현	부회정	신상용	양승우	오금미	우승진	이경환 ^A	이승연	이중구	정동우	주미소	한우철	현승협	황승민
강귀범	강승훈	강주호	고마욱	고은숙 ^A	김경민 ^B	김미영	김성덕	김옥자	김주현	김태형	문성철	박정환	서관순	신소영	양승재	오경환	우정현	이경훈 ^B	이승용	이지환	정미현	진민범	한용석	현아련	황지영
강규광	강승희	강준혁	고민수 ^A	고은숙 ^B	김경범	김미정	김성범	김 용	김주형	김태호	문수형	박준필	서성철	신영승	양승창	오남호	우주경	이광오	이승조	이진우	정상보	진상현	한재현	현영애	황희석
강기훈	강시준	강중진	고민수 ^B	고은영	김경화 ^A	김민범 ^A	김성범 ^A	김용덕	김준범	김하진	문승원	박지관	서영관	신용준	양안순	오도협	원미옥	이권진	이승택	이창수	정상한	진석조	한재호	현은희	
강길남	강신태	강중호	고민수 ^C	고은주	김경화 ^B	김민범 ^B	김성범 ^B	김용범	김준영	김한승	문승일	박지선	서영운	신원섭	양우석	오동석	원상수	이기봉	이승호	이충현	정승렬	진성민	한정환	현정확	
강남훈	강연경	강지연	고민지	고재훈	김광준	김민성 ^A	김성용	김용승	김중현	김현순	문승현	박지연	서은하	신재혁	양우진 ^A	오동은	원준석	이길례	이승훈	이한솔	정용택	진승현	한준희	현준상	

66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 제주개발공사,
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CEO가 취임했습니다.
혁신과 소통을 기반으로 공사 임직원이 모두 힘을 합쳐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 제주개발공사,
함께 이루겠습니다.

99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강대영	강영부	강지훈	고방수	고정남	김광희	김민성 ^B	김성현 ^A	김용원	김지미	김현우	문신영	박진석	서재웅	신준근	양우진 ^B	오동현	유무진	이길수	이양우	이현정	정우철	진용호	한창룡	현지용
강동현	강영진	강진호	고병수	고정석	김군홍	김민수	김성현 ^B	김용진	김지연	김현재	문영식	박진수	선정래	신지운	양원희	오동현	유정우	이나연	이영근	이현주	정인기	진주아	한희주	현철민
강동호	강영철	강찬택	고병호	고정아	김근초	김민영	김성훈	김용찬	김지영	김현철	문용필	박진환	성승엽	신현우	양은희	오병석	유주성	이남호	이영섭	이현호	정인숙	진현중	함정인	홍관우
강도호	강영택	강태호	고병훈	고지현	김기석	김민우	김 솔	김용현	김지하	김형규	문재원	박창현	성창석	안선영	양익동	오상주	유현주	이덕희	이영환	이형철	정재익	채수길	함진규	홍관홍
강무경	강영호	강택진	고봉기	고지훈	김기웅	김민욱	김수민 ^A	김용후	김지현	김형석	문제훈	박 현	성혜영	안성현	양익준	오성훈	윤성빈	이동철	이예석	이호준	정조은	채진용	허상호	홍기훈
강미아	강용관	강필성	고봉수	고진오	김남현	김민정	김수민 ^B	김우찬	김지호	김형섭	문종현	박현배	손강호	안재범	양일민	오숙녀	윤성원	이명선	이예지	이희철	정진영	최창현	허성원	홍성운
강미주	강용원	강현덕	고상준	고진혁 ^A	김대석	김민중 ^A	김수범	김유나	김지훈	김형철	문종훈	박현정	손승우	안정현	양재원	오승민 ^A	윤순중	이명자	이용관	임성준	정진우	최명희	허수진	홍성주
강민범	강용진	강현승	고상혁	고진혁 ^B	김대엽	김민중 ^B	김수현	김윤신	김진구	김호관	문 지	박형미	손홍철	안정희	양정석	오승민 ^B	윤승민	이명정	이용협	임순원	정철호	최연지	허신길	홍성한
강민수	강우중	강현우	고석빈	고진호	김대용	김민주	김수환 ^A	김윤아	김진규	김홍림	문태수	배근열	송가영	안준철	양정선	오승현	윤승범	이미리	이원태	임승남	정홍수	최운석	허영정	홍수현
강민지	강우철	강현웅	고성미 ^A	고창환	김대욱	김민지	김수환 ^B	김윤희	김진우	김홍중	민정수	백기섭	송경훈	안준형	양정환	오승현 ^A	윤승현	이민학	이유정	임영순	정 훈	최은선	허 용	홍승완
강병철	강원경	강현이	고성미 ^B	고태원	김대현	김민철	김숙정	김윤환	김진찬	김홍철	박기덕	백승훈	송대형	안진상	양제인	오승현 ^B	윤재형	이민호	이운재	임영재	조기열	최인호	허용력	홍영민
강보연	강원석	강현준	고성필	고태호	김대훈	김민표	김승규	김은정	김진형	김홍정	박민국	백진우	송두영	안진웅	양진수	오연숙	윤정현	이병윤	이은수	임용균	조대현	최재혁	허준석	홍영철
강복희	강원선	강혜민	고소예	고한철	김도형	김민희	김승원	김인종	김진희	김홍중	박상보	변영준	송상민	안진웅	양진재	오영진	윤지성	이상민 ^A	이은주	임익순	조문희	최정상	허진성	홍원구
강성준	강유미	강호철	고수일	고행승	김동병	김범우	김승준	김재운	김창영	김희범	박성주	변용환	송승진	양경돈	양철석	오용석	윤태균	이상민 ^B	이은협	임태섭	조민범	최정은	현길성	홍유라
강성지	강윤선	강효송	고승찬	고형준	김동민	김병수 ^A	김승현	김재학	김창중	김희석	박성주	변정훈	송영선	양근원	양철준	오유선	윤현석	이상보	이장용	임형보	조민철	최태정	현대인	홍윤희
강성철	강윤정	강효정	고승후	고홍민	김동욱	김병수 ^B	김승환	김정범	김창하	김희철	박성준	변준우	송인권	양근혁	양태준	오윤경	윤효석	이상협	이재두	장동욱	조봉규	최태영	현동민	홍재영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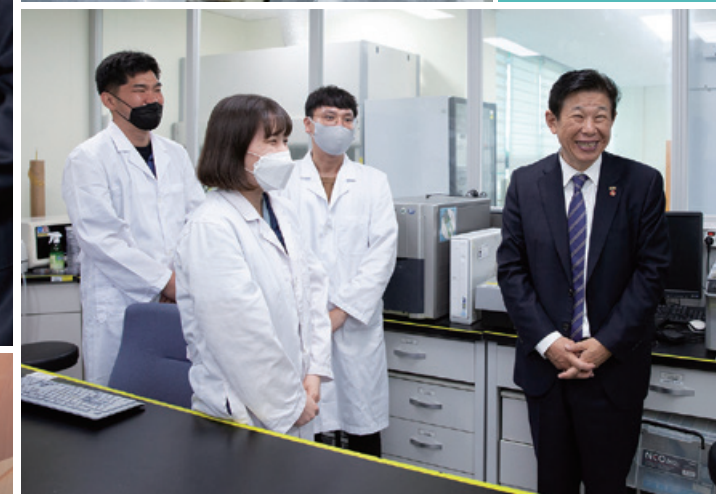
제주개발공사 신임 사장 취임 현장 스케치

소통을 위해,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지난 6월 16일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 김정학 사장이 취임했다. 김정학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임식 행사를 생략하고 제주삼다수 공장과 감귤가공공장 등을 방문, '현장경영' 행보를 본격화했다. 임직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을 강조한 김정학 신임 사장의 하루를 사진으로 만나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안종근



2 — 제주삼다수 공장과 감귤가공공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현장 이야기를 들었다.



1 — 강력한 소통 의지를 밝힌 김정학 사장은 취임 첫 행보로 현장경영에 나섰다.

3 — 각 부서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임직원과 함께 이뤄나갈 것”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김정학 사장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정학 사장은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을 천명했다.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임직원과 만남을 통해 현장경영을 실천한 김정학 사장의 미래 비전을 들어보자.

정리 편집실 사진 안중근



Q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사를 사랑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도민의 기업인 제주개발공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겨 주신 원희룡 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Q 제주개발공사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공사의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25년 전 공사가 설립되고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면서 도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공사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을 이끄는 지방 공기업이며 감귤 가격 안정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는, 단순한 공기업을 넘어선 제주의 보물 같은 자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사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국민 먹는샘물’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 놓았습니다. 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Q 공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먹는샘물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춰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친환경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프리미엄 이미지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감귤가공사업도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감귤 부산물 처리비용 절감 및 수익구조 다변화에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사회 취약 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물산업 확대, 제주삼다수 유통망을 활용한 도내 농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원도심 개발사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청렴한 조직 문화 구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구체적으로 공사 사업별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우선 제주삼다수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전략 수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주삼다수에 대해 대중들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주삼다수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전략 수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주 청정자원의 보전에 힘쓰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제주의
대표 공기업인 우리 공사의 역할입니다.”



유지하고, 제주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파워 1위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모바일 배송업을 통한 판매채널도 강화하고요. 또 해외 수출 전략을 재정립하고 미국과 중국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전과 품질 중심의 스마트팩토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유통구조 혁신 등 물류선진화를 통해 매출과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삼다수의 원천인 수자원 관리와 보호·연구를 강화하고, 제주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제주도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하수 조사연구 인력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이슈에 발맞춘 연구와 투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감귤가공사업은 음료시장 축소로 인해 농축액 재고가 발생하고 판매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정적 판매 거래처를 확보하고, 적정재고 보유로 판매 단가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의 수익개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최근 완공된 감귤부산물보관시설에서 생산한 단미사료를 도내 축산농가와 축협에 공급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감귤부산물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공사의 사회적 가치 경영 모델을 정립하겠습니다. 도민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도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체감형 사회공헌사업 확대 및 발굴, 행정사각지대 중점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및 환경문제 해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리 공사가 어떤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CEO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공사는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파트너'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청정자원의 보전에 힘쓰는 동시에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것이 제주의 대표 공기업인 우리 공사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의 청정자원 보존과 가치창출 활동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공사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물산업 확대, 청년창업 발굴 및 지원, 삼다수 유통망을 통한 친환경제품 판매방안 강구 등 제주의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주거복지, 인재육성,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상생발전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후의 길은 인류가 처음으로 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앞



으로 갈 길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치며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저는 임직원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올곧게 걸으며 희망을 일궈내어, 후세의 이정표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중점을 두는 포인트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공사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원칙과 기준으로 삼아, '안정 속의 진전한 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안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미래로 꾸준히 나아가는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우선 '경영혁신과 윤리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며, 그것이 생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고,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정보를 도민들과 공유하며, 도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투명경

영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육성하여 제주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공사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노사의 역량 결집이 필요합니다.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 노사가 함께 '소통하는 직장', '출근하고 싶은 좋은 직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제주의 다양한 자원 중 최고는 사람이 아닐까합니다. 공사 임직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사 임직원은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주인공입니다. 공사의 주인은 도민이고요. 도민들은 우리에게 공익성, 투명성, 청렴성과 함께 주인의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임직원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사장이든 제가 직접 나서서 보호하겠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을 목표로,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래야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 속의 진전한 개혁'을 함께 이뤄나갑시다.

제주개발공사 생생 현장 메시지

함께 꾸는 대한민국 최고 공기업의 꿈

김정학 신임 사장에게 제주개발공사 직원과 관계자, 제주도민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주개발공사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 갈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정리 편집실



임태섭 삼다수생산2팀
사원(2020년 3월 입사)

“ 사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의 더욱 더 큰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현장에서 공사에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의 삼다수생산3팀
사원(2020년 3월 입사)

“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개발공사가 되는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도 더 나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바지하겠습니다.
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제주개발공사 파이팅!”



박영준 총무팀 경비직
반장

“ 좋은 일자리,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겠다는 말씀 뜻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공사가 좋은 직장이 되면
사장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정성한 총무팀 경비직
반장

“ 사장님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매우 큼니다.
직원들은 근로 복지나 급여인상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데,
가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사장님의 말씀도 인상 깊었고
잘 해결해 주시길 믿습니다.”



문경미 제주물해설사
2017 제주워터(水)아카데미 수료

“ 공사가 앞으로도
제주의 물을 더 친근하게 느끼게 해주고
제주도민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의 물은
우리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가지도록요.”



박인비 공사 후원 프로골퍼
골든커리어그랜드슬래머

“ 공사와 김정학 사장님이 만난 시너지 효과가
제주와 도민에게 화창한 앞날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공사 후원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고진영 공사 후원 프로골퍼
현 세계랭킹 1위

“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물섬 제주도는
많은 분들의 마음의 안식처라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그려나가는
제주도의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영애 탐라영재관
관장

“ 코로나19로 시작한 2020년, 김정학 사장님의
취임과 함께 힘들고 지친 제주도에도, 공사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계획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한철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센터장

“ 사장님께서 실천하시겠다는
'경영혁신과 윤리경영', '투명경영',
'건전한 노사관계'의 약속은 앞으로 공사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도민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는 왜 믿을 수 있을까?

제주삼다수는 1998년 첫 출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먹는샘물 품질기준 항목보다 훨씬 더 강화된 세계적인 수준의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기 때문. 또한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며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삼다수만의 노력을 만나보자.

글 김솔 수포터즈(사내기자)



품질 우수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인증 획득·유지

제품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국내외 인증 시스템이 있다. 제주삼다수가 획득한 인증은 모두 다섯 가지인데, NSF(미국국가위생국), FSSC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JQ(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등이다. 제주삼다수 공장 외에 감귤, 2공장도 HACCP, ISO9001, FSSC22000 등의 인증을 획득, 관리하고 있다.

성공적인 품질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제주개발공사는 매 갱신 시기마다 변경되는 규격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갱신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품질관련 교육과 개선, 현장 위생관리 강화로 인증심사 갱신과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19년 6월에 HACCP 정기평가에서 고득점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NSF,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도 성공적으로 갱신했다. 내부적으로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식품안전 골든벨 퀴즈대회를 운영하고, 현장위생관리 활동 수행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분야 기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총 23회의 교육을 실시했다.

믿을 수 있는 제주삼다수를 위한 꾸준한 노력

제주삼다수의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해 2018년부터 'ITI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 참가, 3스타를 획득하며 국제우수미각상을 3년 연속 수상하고 크리스털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국내 먹는샘물 업계 최초의 사례다. 지속적인 참가와 수상을 통해 삼다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을 강화했다. 공사는 앞으로 내부심사자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품질 키맨(KEY-man)이 품질과 식품안전분야 규격 교육을 실시하고 공유하는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믿을 수 있는 제주삼다수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ITI 국제 식음료 품평회는 2020년 ITI 국제 식음료 품평회로 명칭을 변경함.

인증시스템	최초 취득일	주요 내용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2000.05.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과 관련된 국제 규격으로 제품 및 서비스에 이르는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체계
FSSC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2014.11.25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가 승인한 식품안전경영과 관련된 국제규격으로 식품안전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
NSF (미국국가위생국)	2008.11.19	미국의 위생규격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인증
JQ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2017.12.14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증하는 품질인증
인도네시아 할랄	2017.09.27	LPPOM MUI의 요구조건에 따라 할랄 생산과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우리나라 먹는샘물 시장, 어떻게 시작됐을까?

‘물을 사먹는다고?’ 지금은 이상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20년 전에는 이런 질문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먹는샘물 판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의 역사와 함께 22년간 생수시장의 1위를 지켜온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제주삼다수의 발자취를 짚어본다.

구성 편집실



1 먹는샘물 판매 금지에서 허가까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먹는샘물 제조 허가를 받은 때는 1976년. 주한 미군과 외국인 가족 대상으로 한정 판매된 ‘다이아몬드 정수’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판매한 생수다.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한정으로 한시적으로 생수를 판매했지만 폐막 후에는 국민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판매 금지됐다. 하지만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수 판매 허용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7년간의 공방 끝에 1994년 3월 대법원이 생수 판매금지 무효 판결을 내렸고, 1994년 3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당시까지 금지됐던 생수의 국내 시판을 공식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 1976년 우리나라 최초 생수 제조 허가
- 1988년 서울올림픽 한시적 생수 판매 허가
- 1994년 대법원 생수 판매금지 무효 판결

2 먹는샘물 시장의 시작과 제주삼다수의 탄생

1995년 1월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먹는샘물 시장이 열렸다. 1995년 3월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먹는샘물사업을 추진할 제주개발공사가 설립됐다. 그해 12월 지하 420m에서 제주삼다수의 원수인 화산암반수를 취수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1998년 1월 23일 연간 19만 5,000톤의 먹는샘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주삼다수 공장을 준공했고, 1998년 3월 제주삼다수 0.5ℓ와 2.0ℓ 두 종류로 첫 출시했다. 제주의 천연 암반 지하수라는 수질의 신뢰성과 대대적인 광고로 출시 3개월 만에 업계 1위로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 1995년 1월 먹는 물 관리법 제정
- 1995년 3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립
- 1998년 1월 제주삼다수 공장 준공
- 1998년 3월 제주삼다수 0.5ℓ, 2.0ℓ 출시



3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는 22년간 업계 1위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는샘물 브랜드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 또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 공식 협찬으로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6년에는 미국 PGA 투어 공식 먹는샘물로 지정되어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에는 국제식품포럼원에서 개최한 ‘ITQ 국제 식품로 품평회’에서 3스타를 획득했고, 2020년까지 3년 연속 3스타를 수상한데 이어 국내 최초 크리스탈 등급을 획득해 맛과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 브랜드로 성장하며 먹는샘물 시장에 큰 획을 긋는 제주삼다수,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 기대된다.

- 2010년 G20 정상회의 공식 협찬
- 2016년 미국 PGA 투어 공식 먹는샘물로 지정
- 2018년 ITQ 국제 식품로 품평회 3스타 획득
- 2020년 ITI 국제 식품로 품평회 3스타 3년 연속 수상 ‘크리스탈’ 획득

ITQ 국제 식품로 품평회는 2020년 ITI 국제 식품로 품평회로 명칭을 변경함.



상큼한 레몬 진저 그린티



녹차를 더욱 싱그럽고 향기롭게, 레몬과 진저

매운 맛과 독특한 향기를 지녀 동양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향신료인 진저는 활력 증진에 매우 좋다. 과일 중 레몬이 특히 진저와 잘 어울리는데,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심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각의 긴장 이완에도 좋기 때문에 지쳤을 때 레몬과 진저가 첨가된 티를 마시면 매우 좋다. 녹차에 첨가하면 싱그러움과 향기로움을 더해준다.



티를 더욱 다채롭고 맛있게, 티 베리에이션

탄산, 농축음료, 과일청 등 다양한 음료(재료)와 티를 혼합하는 것을 '티 베리에이션'이라고 한다. 우린 티에 다른 음료 등을 첨가한다는 점에서, 티를 우리기 전에 찻잎과 다른 재료를 섞는 티 블렌딩과 구분된다. 우린 티에 탄산수와 시럽을 첨가하는 티 에이드 등이 이에 해당하며, 과일청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맛있게 티 베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다.



재료 물 400ml, 녹차 찻잎 2~3g 과일청 재료 흰 설탕 700g, 레몬 3개, 생강 한 덩어리



1 레몬 3개와 생강 한 덩어리를 깨끗하게 세척하여 얇게 잘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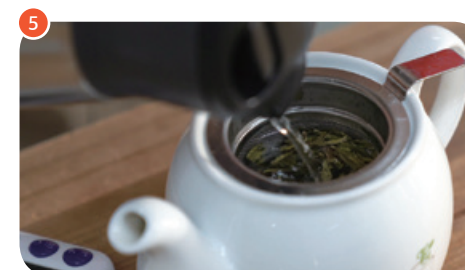
2 얇게 썬 레몬과 생강에 설탕 700g을 첨가하여 잘 버무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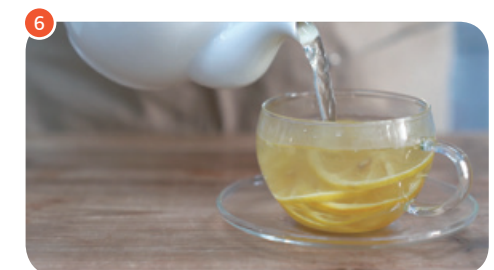
3 설탕과 잘 버무린 레몬과 생강을 병에 옮겨 담는다. 이때 레몬과 생강, 설탕을 층층이 번갈아가며 넣어준다.



4 과일청은 설탕이 녹을 때까지(보통 1일 소요) 상온에 보관 후, 냉장에서 1주일 숙성시킨 후 사용한다.



5 미리 준비한 녹차 2~3g에 80℃ 물 400ml를 부어 3분 동안 우려낸다.



6 4번의 완성된 레몬 진저청을 잔에 담고, 5번에서 우려낸 녹차를 부어 따뜻한 레몬 진저 그린티를 완성한다.



7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경우, 잔에 레몬 진저청과 얼음을 교차로 담고 미리 냉침해둔 녹차를 부어준다.



8 시원하고 따뜻하게, 두 가지 레몬 진저 그린티 완성!

❓ 냉침은 생수에 찻잎을 넣어 냉장에서 10~12시간 차를 우려는 방법이다. 차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니, 일반적으로 물 500ml 기준 2~3g을 사용하면 된다.

습지를 품은 마을, 조천읍 선흘리

혼자 편안하게 걷고 싶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곳. 그래서 무작정 찾게 되는 마을, 길이 편하고 습지와 숲이 아름다운 조천읍 선흘리 마을이다. 선흘리는 조천읍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 '선'은 '서(立)'에 'ㄴ'이 붙은 것이고, '흘'은 제주 방언으로 돌무더기와 잡풀이 우거진 곳으로 선흘곶을 뜻한다. 현재 본동, 낙선동, 신선동, 목선동 등 4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감귤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한다.

글, 사진 김윤정 여행작가 일러스트 하고고

불타버린 후박나무 불칸낭

이른 아침 창 너머 산의 표정을 확인한다. 따듯한 기운이 보인다. 잠시 머뭇거리지는 마음을 밀어내고 길을 나선다. 번잡한 시내를 벗어나고 중산간동로에 진입한다. 이제부터 여유롭다. 오고 가는 차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느려질 수 있어 즐거운하다.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중산간 마을을 천천히 살펴본다. 아쉬움이 물결친다. 조천읍 와흘리 마을에 접어들고 대흘리 마을을 지나 와산리 마을 그리고 선흘리 마을에 도착한다.

선흘리 복지회관과 동백상회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표지석, 주인을 기다리는 오토바이가 차례대로 눈에 들어온다. 오토바이의 주인은 누굴까? 이른 아침에 어디로 마실을 나간 것일까? 버스 한 대에서 동네 삼촌들이 내린다. 말을 걸 새도 없이 삼촌들도 오토바이도 제 갈 길을 간다.

습관처럼 안내판을 읽고 마을을 걷기 시작한다. 발길은 저절로 불칸낭을 향한다. 불칸낭은 불에 칸(탄) 낭(나무)이라는 의미로 제주4·3 당시에 불에 탔다고 알려졌다. 불칸낭 후박나무 속에는 아직도 불에 탔던 검은 자국이 선명하다. 동치가 이렇게 많이 타버렸는데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 신비롭다. 불에 탄 나무의 반대편에는 송악이 달려 있고 그루터기에는 동백나무, 후박나무, 사철나무 등이 불칸낭과 함께 살아간다. 어디선가 날아온 다른 나무의 씨가 새싹을 틔워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것이다. 아마도 서로 도왔기에 생명이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



불칸낭

는 생각을 한다. 우리들도 그네들처럼 함께 어려움을 살아내야 할 텐데. 볼 때마다 느끼는 나무의 강인함이다.

상록활엽수 천연림 동백동산

불칸낭 아래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길게 나 있는 마을 안 돌담길을 본다. 구불구불 이어진 돌담길을 따라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까지 걷는다. 오래전 선흘분교 운동장에 있는 작은 그네가 왜 그렇게 예쁘게 보였는지 모른다. 세상에 허겁지겁 쫓기는 어른이 되어 이제는 돌아가 볼 수 없는 작은 아이였을 때, 그때의 마음이 마냥 그리웠기 때문일 거다. 학교의 느낌도 작은 그네도 그대로인데 운동장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흘분교를 조금 지나면 동백동산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동백동산 습지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이곳을 통해 동백동산 숲을 자주 걸었다. 동백동산은 상록활엽수 천연림으로 20여 년생 동백나무 10여만 그루를 비롯해 백서향 등 희귀식물들과 팔색조, 제주고사리삼 같은 멸종위기 동·식물 등 여러 생명체가 함께 숲을 이루고 있다. 선흘곳에 위치한 동백동산은 생태적 우수성이 인정되어 1981년 제주도 기념물 제10호, 2014년 세계 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되었다. 자태 고운 동백나무 한 그루가 입구에 서 있다. 보고 또 본다. 곱다. 숲속에서 동백꽃은 귀하다. 하늘을 가릴 정도로 높게 솟은 나무들이 빛을 가려 꽃을 피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생명의 보고 람사르습지 만물각

상록수 숲의 기운 속으로 서서히 빠져든다. 새소리 벌레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온다. 시골의 오솔길을 걷는 기분이다. '나무들을 키워내느라 고생했어 숲아' 말을 건넨다. 이롭게 해주는 것은 없는데 쌓인 답답함을 풀고 싶을 때는 늘 숲에 안긴다. 고맙다. 짙은 낙엽이 숲길에 소복하게 쌓여 있다. 몸을 최대한 낮춰 본다. 바스락거림이 너무 좋다. 삼삼오오 사람들이 지나간다. 바짝 땅바닥에 엎드려 본다.

숲길 사이로 숨어있던 습지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습지는 오래전 주민들의 생활용수였고 소와 말의 우물 터였다. 꽃자왈은 습지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지형이다. 하지만 파호이호이용암지대에 위치한 선흘곳 동백동산에는 특이하게 습지가 많다. 빌레에 빗물이 고여 형성된 만물각이 보인다. 마을에서 가장 '멀리 있는 물' 만물각 습지는 다양한 수생식물과 곤충과 양서류



- 1. 선흘분교
- 2. 만물각
- 3. 낙선동4·3성
- 4. 알밤오름 전경

가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로 2011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다. 깊고 맑은 만물각, 수질정화 기능이 정말 뛰어나다. 지구의 모든 생명에게 습지는 중요하다. 다양한 유전자원이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욕심으로 더 이상 지구가 다치지 않기를 사람들이 병들지 않기를 바라며 흔들리고 있는 물의 걸을 가만히 응시한다.

낙선동 4·3성 그리고 4·3폭낭

마을 본동을 나와 낙선동으로 향한다. 식구가 전부 나와 일을 하고 있다. 머릿속에 생각 하나 물고 낙선동까지 길을 걷는다. 제주4·3 당시 중산간 마을은 거의 전소되었다. 선흘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도 전역에 전략촌이 만들어졌다. 바로 4·3성이다. 1949년 불타버린 마을에 돌아온 선흘리 주민들은 산과 밭, 꽃자왈에서 돌을 지고 와 허허벌판인 낙선동에 자신들을 집단수용할 성을 직접 쌓았다. 오랜 기간 성안의 좁고 비 새는 함바집에서 주민들은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비참한 수용생활을 견디었다. 낙선동 마을의 설촌과 함께한 고난의 증표였던 4·3폭낭이 보인다.

선흘곳으로 가는 마을 선흘리

성을 따라 걸어 본다. 함바집을 둘러보고 보초를 섰던 초소에 올라보고 남아있는 총구멍을 한참을 바라본다. 고개를 드니 알밤오름이다. 성담 너머 아련하게 고개를 내민 오름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을 어디에 서 있든 알밤오름이 함께 걷는 듯했는데 바매기오름이 성 안에서도 보였구나. 원시림 동백동산을 중심으로 초지, 천연동굴, 내륙습지 등 생태계의 원형이 잘 보존되고 질곡의 역사가 묻어 있는 선흘곳, 화산섬이라는 척박한 세상을 불평하기보다는 함께 살아내는 생명체의 숲, 때로는 생계 수단으로 때로는 생존 수단으로 마을 주민들과 역사를 함께 한 그 선흘곳으로 가는 길에 세계 첫 람사르 마을 선흘리가 있다.

선흘리 근교 여행지



불칸낭

불칸낭은 제주 방언으로 불에 칸(탄) 낭(나무)이라는 의미다. 수령이 오래된 후박나무로 마을 수호목이다. 제주4.3 당시인 1948년 11월 군경이 선흘마을을 없애기 위해 나무에도 불을 질렀으나 살아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 1095-2

동백동산

선흘리 동쪽에 있는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 천연림으로, 20여 년생 동백나무 10여만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어 동백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도 기념물 제10호,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 지정됐다.

☞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 산12

먼물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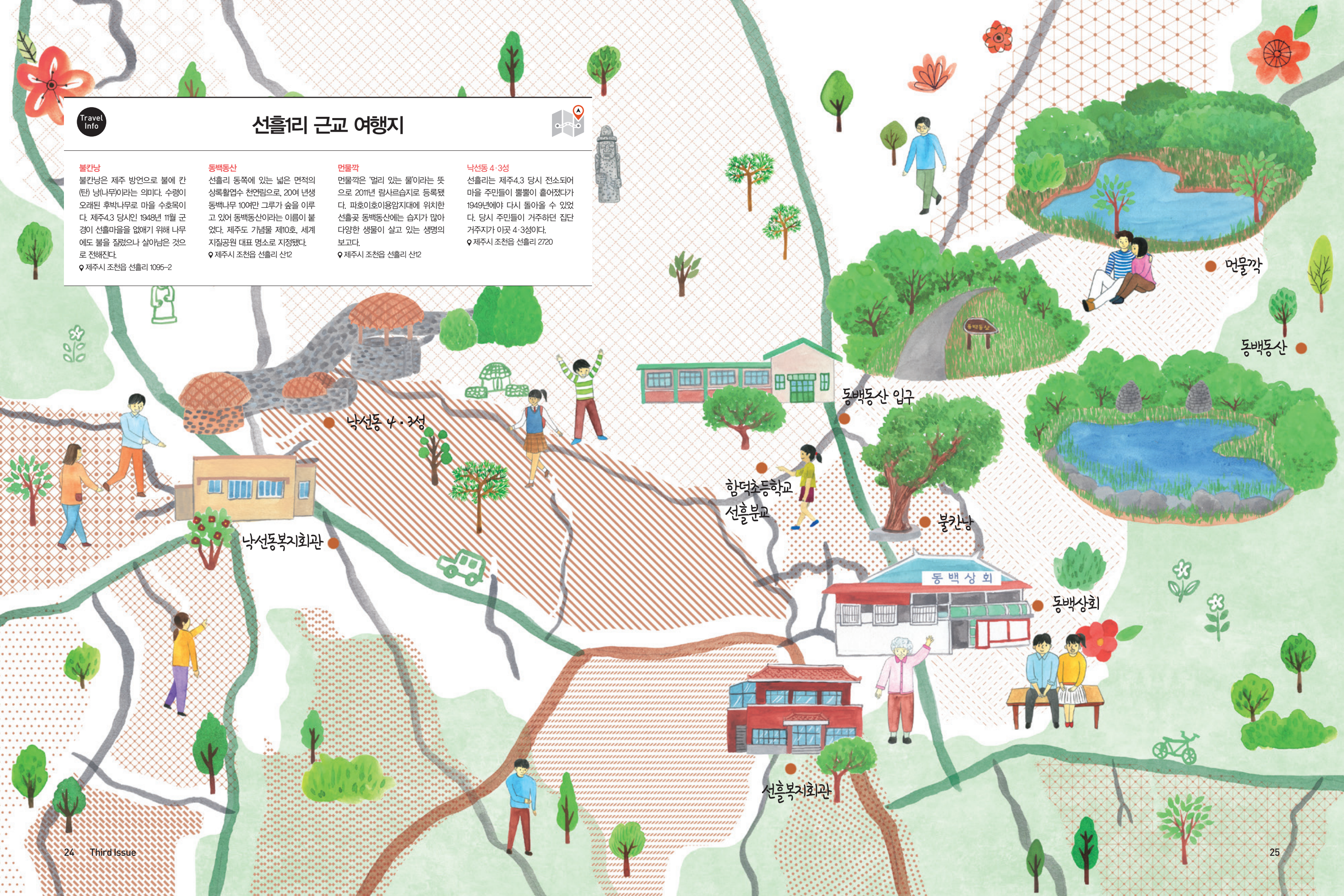
먼물깍은 '멀리 있는 물'이라는 뜻으로 2011년 랍사르습지로 등록됐다. 파호이호이용암지대에 위치한 선흘동 동백동산에는 습지가 많아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다.

☞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 산12

낙선동 4·3성

선흘리는 제주4.3 당시 전소되어 마을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1949년에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당시 주민들이 거주하던 집단 거주지가 이곳 4·3성이다.

☞ 제주도 조천읍 선흘리 2720



BEING ECO- FRIENDLY



제주삼다수 친환경 경영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까지 책임진다

청정 제주의 자연환경에서 태어난 제주삼다수, 그 탄생에 걸맞게 제주삼다수는 생산의 모든 단계부터 친환경으로 시작해 페페트병까지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 최정상 수포터즈(사내기자)



▲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생산 단계부터
'환경' 최우선 고려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참여 모습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생산부터 소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강화하는 '친환경 경영 TOP10'을 세우고 그 중에서도 페트병의 재활용성을 높이는 데 가장 먼저 초점을 맞췄다. 원래 재활용이 쉽도록 페트병과 병뚜껑을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재질을 적용해온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일 재질의 무색 병과 물에 잘 분리되는 라벨접착제를 도입했다. 또 제주삼다수에 '에코라벨'을 도입, 소비자들이 페트병을 버리기 전 손쉽게 라벨을 떼어 낼 수 있도록 라벨에 분리선을 도입했다. 재활용이 쉽고 소비자들이 쉽게 올바른 분리 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계해 한국환경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우수등급'을 받았다.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인증과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에 성공했다. 또 공장 내 1,000톤 규모의 빗물 재활용 시설을 갖추고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공정 용수로 사용하며 최근 5년 간 총 8만 4,658톤의 지하수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페트병 수거에도 앞장서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를 운영하고 있다. 빈 페트병이나 캔을 보상기에 넣으면 포인트를 적립해주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공항과 제주 내 주요 장소에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를 확대 설치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자원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든다



JPDC 창·의사업 공모전 '내가GREEN제주'

제주삼다수의 생산부터 소비, 수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성을 강화하고 있는 공사는 삼다수 페페트병 업사이클 추진에 동참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리고 있다. 공사는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효성TNC, 플리츠마마와 함께 빈 페트병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공사가 삼다수 페페트병을 수거해 효성TNC에 제공하면 효성TNC는 리사이클 섬유 제조 기술로 페트병을 섬유칩으로 만든다. 섬유칩을 친환경 패션 스타트업 브랜드인 플리츠마마에 전달하면 이를 니트플리츠백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제주삼다수 페트병 16개로 만들어지는 플리츠마마 제품은 6월 초 시장에 출시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소셜 벤처 육성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JPDC 창·의사업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의 새로운 가치' 발굴을 통한 환경 문제 해결을 주제로 진행된 지난해 사업은 자원 대상 선정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리빙랩(Living-Lab) 방식을 도입해 실효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물 절약 캠페인'도 지속 확대 중이다. 2018년 노형중학교의 수도꼭지와 화장실에 절수기를 설치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25%의 물 절약 효과를 봤고, 2019년에는 도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절수기 설치를 지원하며 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앞으로도 먹는샘물 시장의 리더로서 사회적 책임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제주삼다수 페페트병 업사이클링을 통해 제작된 니트플리츠백



아이유와 제주삼다수가 함께하는 싱그러운 첫 여름

제주삼다수 브랜드 모델 아이유

제주삼다수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인 아이유와 제주삼다수가 함께하는 첫 여름, 아이유가 '삼다소담' 독자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제주와 삼다수를 아끼는 마음이 가득한 아이유의 여름 편지를 소개한다.

구성 편집실

아이유와 제주삼다수, 최고의 만남을 이룬다

“화산송이, 너 삼다수랑 무슨 사이야?” 제주의 독특한 자원인 화산송이를 집어 든 아이유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묻는다. 돌담 뒤에 숨으며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울창한 숲 속을 거닐며 생기 넘치는 청량한 모습을 보여준 아이유. 화산송이로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과 깨끗함을 지키는 제주삼다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제주삼다수의 건강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아이유와 제주삼다수의 첫 만남인 광고 캠페인은 공개 직후부터 맑고 생기발랄한 아이유의 매력에 청정 제주 자연과 잘 어우러졌다는 호평을 받았다. '제주 화산송이로 생명력을 키우는 물'이라는 콘셉트로 '돌담편', '숲길편'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광고 캠페인은, 제주삼다수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천연 필터링 역할을 톡톡히 하는 천연 자원 화산송이를 중심으로 제주삼다수의 차별화된 깨끗함을 알리고 있다. 아이유와 제주삼다수의 첫 광고 캠페인은 광고 전문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최고의 만남'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아이유 역시 “삼다수처럼 맑고 깨끗한 콘셉트의 광고였다. 선선한 날씨에 신선한 숲의 공기를 마시며 촬영해서 그런지 물입이 더 잘 났다”며 소감을 전했다.

Q 제주삼다수의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주삼다수와의 첫 만남은 어땠나요?

첫 느낌은 '삼다수처럼 맑고 깨끗하다'였어요. 광고 콘셉트 자체가 자연의 생명력과 깨끗함을 잘 살렸다는 느낌이었어요. 촬영에 들어간 날이 3월이라 선선한 날씨였는데, 신선한 숲의 공기를 마시면서 촬영해서 그런지 더 몰입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Q 촬영 중에 기분 좋은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제주에 살고 계세요. 따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았어요.

Q 2018년 한 인터뷰에서 '제주도에 가서 가장 좋은 2주를 보냈다'고 하셨어요. '효리네 민박' 프로그램 출연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주의 아름다움도 많이 만나셨을거 같아요. 새롭게 다가오는 제주는 어떤 느낌인가요?

'효리네 민박' 이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러 더 자주 제주에 들르게 됐어요. 전보다 더 편한 곳도 많아졌고 제주의 매력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주는 생각보다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뒷골목처럼 친근한 모습도, 낯설고 이국적인 모습도, 상상 속 세계처럼 거대하고 신비로운 모습도 다 가지고 있어요. 갈수록 더 궁금해지는 곳입니다.

Q 제주를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작년에 밴드 마스터 언니와 함께 제주 여행을 했어요. 그때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밤 드라이브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음악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서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계속 달렸어요. 이런저런 고민거리와 잡담도 실컷 하고요. 정말 그 순간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느낌, 자유로움을 오롯이 만끽했죠.



Q 첫 장편영화 <드림>이 크랭크인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배우까지 자신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넓히고 있는데, 영화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요?

이병헌 감독님의 신작 영화 <드림>은 생전 처음 공을 잡아본 특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월드컵 도전기예요. 저는 급조된 축구대표팀의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성공을 꿈꾸는 방송국 PD 이소민 역을 맡았습니다. 다른 분들과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가장 중요한 영화라 제가 이야기에 잘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Q 제주삼다수와의 만남이 서로에게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다소담'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주삼다수 광고 캠페인을 촬영했던 첫 날은 아직 쌀쌀한 이른 봄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여름이 코앞이네요. 아이유와 삼다수와 함께 하는 첫 여름입니다. 무더울수록 제주삼다수로 수분 보충(^)에 신경써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하세요!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최고의 만남이 되길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배우까지 자신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넓히며 활기차고 에너지 가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이유. 기부와 선행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트리는 그녀의 모습은 청정 제주의 가치를 담고 전파하는 제주삼다수를 그대로 닮았다. 아이유와 제주삼다수의 '최고의 만남'이 모두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 수자원의 가치를 높인다

7년 활동 마무리하는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제주의 수자원 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이하 제주권 지역거점센터)가 7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인 국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사업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권 지역거점센터를 설립, 제주지역의 현안 해결에 힘써온 것이다. 7년의 대장정을 마친 제주권 지역거점센터의 활약을 들어보자.

글 편집실 사진 정익환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연구를 시작하다

“2014년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뒤로 7년의 시간이 쏘살같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서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주권 지역거점센터 고기원 센터장(공사 품질연구본부장)은 “연구비를 지원받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많은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빙그레 웃는다.

제주권 지역거점센터의 시작은 제주개발공사가 국토교통부 연구과제인 국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다. 국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사업은 전국 6대 권역에 지역밀착형 지역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현안과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지역특화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제주개발공사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는 제주권 지역거점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한 고인종 선임연구원은 “지역 밀착형 연구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상향식 과제 발굴 덕분”이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과제가 정해져 있어서 잘 수행해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우리가 과제를 발굴해서 심사를 받는 상향식 과제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발굴할 때에도 수요조사만 거의 천 곳을 했던거 같아요. 제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했으니까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좋은 성과가 많이 나와서, 우리의 활동이 상향식 발굴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주 수자원 가치 발굴을 위해 힘을 합치다

제주권 지역거점센터는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보전·관리, 해수침투 분석 및 염지하수 활용, 홍수피해 분석 및 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재해영향 분석기술 개발, 폐기물 활용 단열재 개발 등을 과제로 선정해 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내 인력은 물론 도외 전문가까지 무려 226명이 참여했다. 주관 연구기관인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주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한국품질연구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주)CS, (주)SDM, (주)스와 디시크리트, (주)GMC, 와이즈포스트(주), (주)신영ESD, (주)벽산 등 유관기관과 연구기관 다수가 참여해 활발한 협력이 이뤄졌다. 제주권 지역거점센터의 안살림을 도맡아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진영준 선임연구원은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한 인력들 모두 최고의 파트너였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워낙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진행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 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라 쉽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사와 제주도에도 좋은 경험과 자산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차곡차곡 쌓인 7년간의 연구 성과

실제 제주권 지역거점센터가 7년간 이뤄낸 연구성과는 만만치 않다. 고기원 센터장은 자랑스러운 연구성과로 제주도 수문지질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질·지하수 관련 단행본 발간, 염지하수열 활용 시스템 개발 등 세 가지 성과를 꼽는다. 우선 ‘제주도 수문지질통합정보시스템’은 그동안 각종 지하수 관련 통계와 자료가 산발적으로 보관되고 있던 것을 총망라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한 작업이다. 제주 지하수 개발이 시작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종이로만 관리해오던 방대한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스템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문지질, 지하수 관정, 토지이용,

“성공적인 결과를 내는 데 협력을 아끼지 않아 주셔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사와 제주도에도 좋은 경험과 자산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고기원 센터장



고인중 선임연구원



진영준 선임연구원



강재선 연구원



수위·수질·강우량 등 28종 6,920만 건의 데이터베이스가 집적돼 있다.

또 ‘제주도 시추코어 지질검층 지침서’, ‘화산섬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 단행본을 발간해 연계 교육 교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제주지역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담은 ‘제주물 스토리북’도 발간했다. 여기에는 거점센터가 주관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제주물해설사’들이 참여, 현장을 누비며 스토리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염지하수의 수열을 활용하는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현장적용 연구까지 마쳤다. 시설하우스의 냉·난방에 15~17℃의 항온성을 유지하는 염지하수를 이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93% 이상 감소하고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지난 2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 기술 이전까지 완료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으로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에서 25시간을 꼬박 버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간 염지하수 수열 활용을 연구한 결과가 정말 좋게 나오고, 또 실제 적용된다고 하니 큰 보람을 느끼고

Mini Interview

우리의 성과가 새로운 열매 맺는 밑거름 되기를

제주권 지역거점센터 고기원 센터장



7년의 시간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지만 보람도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기술 지역특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할 때에도 마찬가지였

죠.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도전이었기에 지역거점센터로 지정되었을 때 정말 뭉개릴 듯이 기뻐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마다 배워가면서 해 내는 성취감으로 가득했던 7년이었습니다.

제주권 지역거점센터는 종료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2025년 2월까지의 국가연구개발 규정에 따라 연구 성과 관리 등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연구결과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성과가 잘 나오는지 체크하는 일입니다. 이 성과를 이용해서 후속 연구 사업들이 더 많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7년간의 노력이 새로운 열매의 밑거름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거점센터는 종료되지만,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더 좋은 성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염지하수열 활용 현장연구를 진행한 강재선 연구원의 말이다.

이외에도 제주도의 해수면 상승과 폭우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주형 재해취약성 분석시스템’도 개발해 제주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제주도 현무암 폐석 및 석분 슬러지를 활용해 기존 단열재보다 성능이 뛰어난 단열재를 개발, 관련 특허를 획득했으며 한 기업체에서 사업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7년간 제주권 지역거점센터는 특허출원 14건, 특허등록 10건, 국내외 논문 43건, 학술발표 114건, 기술이전 7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냈고,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함과 아울러 앞으로 제주지역 국토교통 분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주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백서(2014~2020)’도 발간했다.

제주의 수자원과 재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로 뛰어 온 7년의 시간, 제주 수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온 제주권 지역거점센터의 성과가 제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지역거점센터 7년간의 기록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제주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온 제
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가 7년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
리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 7년간의 대장정을 되짚어본다.
정리 편집실



특허출원
14건



특허등록
10건



국내외 논문
43건



학술발표
114건



기술이전
7건



2014.6. 현판식



2014.10. 그라운드워터코리아 홍보



2015.7. 2차년도 공유회의



2017.3. 제주도 수자원 정책 심포지엄



2018.5. 제주물 스토리북 현장조사



2018.9. 제주워터(水)아카데미 교육

2014년

- 2월 2014년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시행 공고
- 5월 제주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선정
- 6월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협약 체결
- 7월 1차년도 Kick Off Meeting 개최
- 9월 2014년 제주권 건설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 12월 제주권 지역거점센터 현판식 및 간담회 개최

2015년

- 2월 제주권 지역거점센터 1차년도 중간평가
- 7월 1차 세부기관 연구과제 현장실태 점검
- 8월 제1회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10월 제주도민 대상 국토교통 R&D 홍보 및 수자원 교육 실시
- 11월 2015년 제주권 건설교통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 12월 2차 세부기관 연구과제 현장실태 점검

2016년

- 1월 제주권 지역거점센터 협의회 개최
- 2월 제주도 지질주상도 작성 매뉴얼 교육
- 5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업무 협약
- 8월 2016 제주워터(水)아카데미 운영
- 10월 제주특별자치도-거점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 12월 2016년 제주권 기획연구 보고서 제출

2017년

- 1월 연구과제 현장실태 점검
- 3월 제주도 수자원 정책 심포지엄 개최
- 4월 '제주도 시추코어 지질검층 지침서' 발간
- 5월 2017 제주워터(水)아카데미 운영
- 11월 제주물해설사 양성과정 10명 수료
- 12월 '화산섬 제주도의 지질과 지하수', 제주도 수자원·지질 연구문헌 초록집 발간

2018년

- 3월 지역특성화사업 1세부과제 완료
- 4월 3세부 염지하수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 5월 지역특성화사업 2세부과제 완료
- 6월 2018 국토교통기술대전 연구성과 홍보
- 9월 2018 제주 워터(水)아카데미 운영
- 11월 서귀포농업기술센터-제주권 지역거점센터간 기술업무 협약 체결

2019년

- 5월 2019 국토교통기술대전 연구성과 홍보
- 6월 염지하수열 이용 에너지 저감 연구성과 발표
- 9월 2019 제주워터(水)아카데미 운영

2020년

- 2월 제주권 국토교통기술지역거점센터 운영 종료
- 3월 '거점센터 운영백서' 발간
- 5월 '제주물 스토리북' 발간



제주삼다수 주역들의 생생한 토크 한마당

삼다수생산본부

제주삼다수를 최고의 먹는샘물로 성장시킨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365일 24시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제주삼다수 생산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삼다수생산본부의 생생한 토크를 들어보자.
글 편집실 사진 안중근

편집실 :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주역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용덕 본부장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탈까요?**

김용덕 본부장 : 우리 삼다수생산본부는 제품생산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다수생산기획팀에서 생산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삼다수생산1·2·3·4팀이 각각 한 라인씩을 맡아 제품 생산과 관리, 현장 안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각 라인마다 설비도 약간씩 다르고 생산 품종도 달라서 특색이 있죠.

편집실 :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많으셨을거 같아요.

김용덕 본부장 :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지요. 평소에도 위생과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했으니까요.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격려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아쉽죠. 코로나19로 특히 삼다수생산팀 이승훈 팀장이 요새 많이 애를 먹고 있어요.

이승훈 팀장 : 우리 삼다수생산팀은 1998년 최초 준공한 공장 라인(Line)인 L1, 2의 제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라인이지만 0.33ℓ부터 2.0ℓ까지 5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인이지요. 사실 올해 L1 라인을 철거하고 10월에는 L2에 리모델링 설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늦춰지는 상황이에요. 이탈리아에 있는 리모델링 업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미팅 한 번 하려고 해도 한 달 격리를 각오해야 하니 진행이 어렵습니다. 계획한 대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김용덕 본부장 : 또 어려운 점이 공사의 설비라서 설비매각 등 처분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다 숙지해야 하고, 그대로 지키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해야 하는 거죠. 설비 도입 이야기를 하면 우리 삼다수생산4팀도 빼놓을 수 없죠.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삼다수생산3팀도 코로나19로 새로운 설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고용훈 팀장 : 우리 삼다수생산4팀이 운영하는 L5는 세계 최고 수준 생산 속도를 가진 스마트팩토리로 2018년 5월에 본격 가동했습니다. 설비 도입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계속되는 폭설로 현장 내 설비를 반입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하루종일 눈을 치우느라 고생하며 공사기간을 겨우 맞췄습니다. 또 생산설비를 운반하던 바지선이 김녕항에서 고장 나서 해경 등이 출동한 일도 있었어요. 다행히 발 빠른 조치로 잘 해결되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한을 맞춰 시제품을 생산하고 본격 가동했다는 데 우리 팀원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요. 현재 LGV 무인지게차 도입으로 자동화를 통한 환경개선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응급알림시스템 고도화 작업, 웨어러블 로봇 도입 등으로 더욱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고병수 팀장 : 삼다수생산3팀은 L4 라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4 라인

2013년에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설비를 도입한 라인입니다. 이제는 L5에 자리를 내줬지만, 생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생산된 제품을 육안으로 검사할 수 없을 정도지요. 최근 안전과 효율 향상을 위해서 최신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한 팀으로 묶였는데, 서로 소통하고 단합할 시간이 많이 가질 수 없다는 점이에요. 다행히 코로나19 확산 직전 설비정지기간에 '통통 1박 2일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원들 사이의 벽이 많이 허물어졌죠. 하반기에는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서 철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포스터공모전과 UCC 공모, '아차사고' 발표대회, 안전포인트제 운영 등 안전이벤트 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편집실 : 이번에 품질분임조경진대회 지역예선에 삼다수생산본부의 품질분임조 세 조가 출전하셨다고 들었어요.

김용덕 본부장 : 지난해 삼다수생산2팀과 삼다수생산3팀에서 두 조가 출전해서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한 조



가 더해져서 세 조가 지역예선에 출전했는데요, 모두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해서 제주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고병수 팀장 : 우리 팀에서는 이글스, 도전 품질분임조 이렇게 두 조가 출전했는데,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글스가 2년 연속 본선에 진출하니 다른 분임조들도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국대회에 나간 이상 다른 회사에 상을 넘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이 기세를 쪽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동훈 팀장 : 우리 팀의 CAP 품질분임조가 이번 지역예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죠. 작년에도 첫 출전에 대통령상 은상을 수상해서 올해도 기대가 큼니다. 우리 삼다수생산2팀은 다른 팀과는 다르게 생산라인에 병뚜껑을 공급하는 캡 사출설비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CAP 품질분임조는 지난해와 올해 꾸준히 캡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편집실 : 올해 전국대회 성적이 기대되네요. 이외에도 삼다수생산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양정환 과장 : 우리 삼다수생산기획팀이 전체 생산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생산 전반의 모니터링은 물론 미래에 대비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새로운 스마트팩토리 L6를 준

비하고 있고요, 또한 친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팀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다수생산2팀을 중심으로 환경이슈에 대응하고자 20ℓ 제품 라벨분리표시 적용, 라벨 자동세정장치, 습식 컨베이어 개선 등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실 :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삼다수생산본부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덕 본부장 : 삼다수생산본부의 슬로건은 '더 안전한 현장, 더 완벽한 품질, 친환경 생산을 통한 새로운 도약'입니다. '선안전, 선품질, 후생산' 원칙으로 더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다양한 예방, 소통활동을 전개하고 안전한 품질 개선을 위해 불량률 관리,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양정환 과장의 말처럼 친환경 이슈에도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연초 수립한 목표대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목표가 92만 톤인데, 이미 5월 말 기준으로 37%를 달성했으니까요.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합심해서 안전하게, 또 완벽한 품질로 2020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삼다수생산본부 파이팅!



삼다수생산본부 김용덕 본부장



삼다수생산기획팀 양정환 과장



삼다수생산1팀 이승훈 팀장



삼다수생산2팀 한동훈 팀장



삼다수생산3팀 고병수 팀장



삼다수생산4팀 고용훈 팀장

코로나19, 힘을 합쳐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한편, 제주 지역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글 양근원 수포터즈(사내기자)



1 응원의 마음, 제주삼다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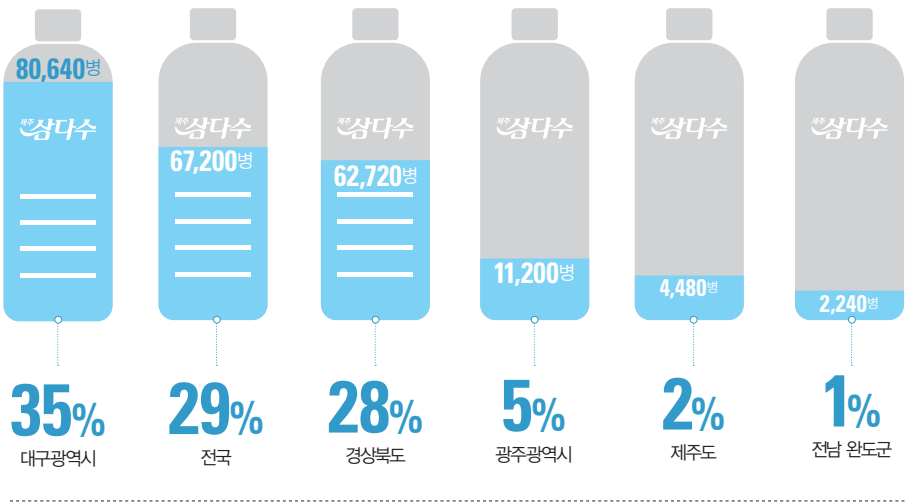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피해가 확산되며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코로나 19 피해에 제주개발공사가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지역에 긴급지원을 실시했다. 지난 2월 11일 광주광역시에 제주삼다수 0.5ℓ 1만 1,200병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지역에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15만 4,560병의 제주삼다수를 지원했다. 전국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를 통해 제주삼다수 0.5ℓ 6만 7,200병을 지원했고, 제주지역에도 3월 2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제주삼다수 0.5ℓ 2,240병을 지원했다. 2월부터 3월 말까지 공사가 지원한 제주삼다수 0.5ℓ는 모두 22만 8,480병이다.



제주삼다수 0.5ℓ

총 **22만 8,480**병 지원



2 제주삼다수에 담은 사랑, 미국령 괌까지

특히 지난 5월에는 먹는샘물 품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령 괌에도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공사는 12년간 제주삼다수 괌 총판을 맡고 있는 업체로부터 괌에 먹는샘물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제주삼다수 기부를 결정했다.

공사는 괌 국토안보부에 삼다수 500박스, 구세군 250박스, 카톨릭 사회 서비스 250박스, 보건국 20박스, 대학 기숙사 50박스, 교육청 50박스 등 총 1,120박스를 기부했다. 이는 제주삼다수 0.5ℓ 2만 2,400병에 달하는 양이다.



제주삼다수 0.5ℓ
2만 2,400병

3 제주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나눔

공사는 제주삼다수 지원 외에도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손잡고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쌀 5kg과 참치캔, 라면과 핫반, 비타민, 건강간식 등 식료품과 치약, 타올, 손세정제, 핸드워시 등으로 알차게 구성된 희망꾸러미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한 것이다. 마스크, 비누, 건강간식 등은 각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후원한 물품으로 꾸러졌고, 현금을 지원한 사회적기업은 물론 지원 대상자에게 희망꾸러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회적기업도 있었다. 이외에도 대구 지역의 무료 급식 중단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2,000명에게는 도시락을 제공해 영양 지원을 도모했다.

또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힘을 더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재배능가를 돕기 위해 전사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를 위해 '낙농 꾸러미' 공동구매도 진행했다.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친환경 채소를 담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238개, 닭과 치즈를 담은 '낙농 꾸러미'는 205개가 판매됐다.

희망꾸러미

 총 **400**세트 지원
(5,000만 원 상당)

도시락 지원

 총 **2,000**명 지원
(노숙인 1,400개, 취약계층 600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238**개

낙농 꾸러미 공동구매

 **205**개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4 위기 극복에 함께하는 공사 직원들

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헌혈자가 크게 줄고 단체헌혈이 취소되는 등 제주 지역의 혈액수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라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매년 1월에서 3월까지의 학교 방학 등의 이유로 헌혈량이 감소하는 시기이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수급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공사 임직원들은 지난 4월 21일 본사 소재지인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공장과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임시사무연구동 등 두 곳에서 헌혈을 통한 사랑나눔에 동참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공사는 매일 출근 시 전 직원 발열체크를 진행했다. 또 전사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공지하고 사내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한편, 생산공장, 회사 내 공공장소도 소독과 방역을 강화해 철저히 대비했다. 공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품질연구팀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연구실 최고의 가치는 안전

더 좋은 제주삼다수를 위해 제주삼다수의 품질 시험·분석은 물론 친환경 패키징, 제품 품질개선 등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는 품질연구팀. 다양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품질연구팀은 생산현장 못지 않게 철저히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품질연구팀의 활동을 만나보자.

글 김슬 수포터즈(사내기자) 사진 정익환



안전한 연구실은 안전관리지침 마련부터!

생산 현장만 안전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에 안전을 기하고 있는 품질연구팀은 기존에 운영되던 안전관리지침을 전부 새롭게 바꾸었다. 2015년에 제정된 ‘물산업 연구센터 실험실 안전관리지침’이 있었지만 조직개편과 관련 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지침이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품질연구팀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법적 준수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세부 지침사항을 정해 안전한 연구실 운영을 위한 ‘연구실안전관리’기준을 재정립했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세부지침 정립을 통해 안전관리를 현실화했다.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소통활동

이에 따른 실천노력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의거 일상점검과



2019년 한 해 동안
연구실 사고발생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월간점검을 통해 실험 전 위험요소를 미리 도출하여 제거하고, 매년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실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구실 근로자 보호는 물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연구실 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과 함께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실 보안강화를 위해 연구실 출입자 관리기준을 정립하여 출입자들에게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등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근로자 간 소통과 협업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9년 사고발생 제로를 달성하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연구실 사고발생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힘을 합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품질연구팀. 2020년에도 사고발생 제로 달성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품질연구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Mini Interview

안전사고 없는 활기찬 연구환경을 위해

품질연구팀 강혜림 연구원

연구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서 품질관리팀, 안전환경관리팀과 함께 모의훈련을 했는데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몸으로 실행하려니 잘 되지 않아 당황스럽더라고요. 실제 사고 상황을 연습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이었고, '행동하는 안전'을 되새길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모의훈련이나 안전교육을 통해 익힌 점들을 항상 기억해서 2020년에도 안전사고 없는 연구실이 되는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해 연구가 멈추지 않도록, 활기차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품질연구팀 정동우 연구원

저는 품질연구팀에서 이화학, 미생물, 무기물 중금속 등 미량원소 분야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올해 저의 목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무기분석실과 가스보관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1등급 연구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관련 개선사항들을 신속히 시정하여 가장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모자라지만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군가가 나를 꼭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삼다수, 재활용 우수 등급 획득

제주삼다수가 한국환경공단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제주삼다수는 페트병을 단일 재질의 무색병으로 전환

하고 라벨과 병마개를 비중 10만분의 합성수지 재질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열알칼리성 분리접착제를 적용해 라벨이 보다 쉽게 제거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0.5ℓ 제품에 라벨 분리 표시를 도입하며 이번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서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게 됐다. 제주삼다수는 5월부터 0.5ℓ 제품 라벨에 환경성적표지와 재활용 우수등급 마크를 적용했으며 올해 안으로 2.0ℓ 제품에도 라벨 분리 표시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라인업에 재활용 우수등급 포장재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2

제주 용천수 문화 담은

'제주물 스토리북-제주 동부지역편' 발간

제주물 해설사들이 곳곳을 누비며 용천수 현장을 기록한 책자가 발간됐다. 공사 제주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에서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용천수를 기록으로 남기고, 용천수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주물 스토리북-제주동부지역편'을 발간했다. 제주 물문화 보존을 위해 지역거점센터에서 '제주물 해설사' 과정을 운영했으며, 이번 스토리북 발간사업에 제주물 해설사가 직접 용천수 현장을 찾아 스토리를 발굴·기록하도록 했다. 공사는 '제주물 스토리북'을 도내외 공공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해 제주 용천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주도 서부 읍면지역을 비롯한 제주시 및 서귀포시로 조사를 확대하여 제주도 전체의 '제주물 스토리북'을 완성할 계획이다.



3

제주개발공사,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혈액수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나섰다. 공사 임직원들은 최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공장과 제주시 첨단과학

기술단지 내 임시사무연구동 등 두 곳에서 헌혈을 통한 사랑나눔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헌혈 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혈액 사용량은 증가하며 혈액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4

'국제 우수 미각상' 최고 등급 '3 Star'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No.1 먹는샘물' 제주삼다수가 '2020 ITI 국제 식음료 품평회'에서 국제 우수 미각상 최고 등급인 '3스타'를 수상했다. 'ITI 국제 식음료 품평회'는 'ITI 국제 식음료 품평회'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제주삼다수는 맛과 향, 조직감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90% 이상 획득하며 3스타로 선정됐다. 제주삼다수는 2018년 국내 주요 생수브랜드 중 최초로 3스타를 수상한 데 이어 3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는 변함없는 맛과 품질을 위한 공사의 노력까지 인정받아 국내 최초 '크리스탈'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국내 No.1 생수 브랜드로서의 위상은 물론 제주 지하수와 국내 먹는샘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게 됐다.



5

제주삼다수x카카오프렌즈 제주 에디션 출시

제주삼다수와 카카오프렌즈가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제주삼다수x카카오프렌즈 제주 에디션'은 제주삼다수 라벨에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녀와 바람, 감귤, 유채꽃 등의 이미지를 사랑스럽게 표현한 캐릭터를 적용한 것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청정 브랜드인 제주삼다수의 정체성을 보다 유쾌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휴대성이 좋은 0.33ℓ 소용량 제품으로 제작되어 전국 대형마트에서 여름 한정 기간 판매된다. 한편 제주삼다수는 2018년부터 카카오프렌즈와 협업을 진행해 젊은 소비자층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고유한 브랜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제주삼다수, 친환경 다투백으로 다시 태어나다

친환경 다투백으로 다시 태어난 제주삼다수를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제주삼다수와 제주도, 효성TNC, 플리츠마마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제주 자원순환 프로젝트 '다시 태어나기위한 되돌림'의 홍보 부스가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운영됐다. 이번 홍보 부스에서는 제주 순환형 리사이클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를 국내 여행객들에게 알리고, 제주삼다수 페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해 제작된 '플리츠마마 제주 에디션' 전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삼다수는 생산부터 리사이클까지 전 과정에서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대한민국 No.1 먹는샘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제주개발공사 Channel

1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알고 싶을 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활동과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만나보세요.

대표 브랜드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샘물사업, 음료사업, 지역개발 사업, 공익사업 등 제주개발공사의 핵심 사업과 활동 등을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공사 웹진 바로가기

신기한 물 이야기, 즐거운 제주 이야기가 가득!

월간 웹진 '삼다소담'

<http://webzine.jpdc.co.kr>

제주의 물 이야기와 즐거운 제주 소식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월간 웹진 '삼다소담'으로 오세요.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다양한 공사의 활동과 흥미로운 물 이야기, 즐거운 제주 이야기까지 가득합니다.



3



공식 포스트 바로가기

풍성하고 재미있는 제주삼다수 이야기

제주삼다수 공식 포스트

<https://post.naver.com/samdasoostory>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브랜드이자 먹는샘물 No.1 '제주삼다수'를 만나보세요. 제주삼다수 공식 포스트에서는 제주삼다수에 대한 풍성하고 재미있는 물 이야기와 트렌디한 제주 소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언제나 변함없이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파트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 및 그 가치를 활용해 도민에 기여
먹는샘물 사업



제주 감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로 부가가치를 창출
감귤가공 사업



제주도민의 주거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공공주택 사업



제주지역 인재 육성 및 제주 출신 학생 주거문제 해결
인재지원 사업



제주의 환경과 문화 가치를 알리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활동
사회공헌 사업